

# 석 달 만에 ‘1000p’ 꺾충… ‘코리아 프리미엄’ 기대감 고조

## 코스피 5000 시대

### 韓 증시 새 국면

코스피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1000’ 포인트를 뛰어 넘어 5000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그간 1000 단위씩 ‘점프’하는 데 6~18년이 걸렸지만 3000에서 4000에 이르는 데 4년 9개월이, 4000에서 5000 고지를 넘는데 석달이 채 안 걸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뒷받침되자 외국인 투자가 코스피로 몰렸다.

### IMF 딛고 글로벌 주요시장 부상 지수 상승곡선 갈수록 가팔라져 대형주 쏠림현상 완화 등 과제

#### ◆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한 ‘오천피’

22일 코스피는 장중 5019.54를 터치하며 지수 5000 시대를 열었다. 1980년 코스피 지수 100에서 1000을 찍는 데 9년 2개월, 2000은 18년 4개월, 3000은 13년 6개월이 걸렸다. 4000은 4년 9개월, 5000에 도달하는 데에는 3개월이면 충분했다.

코스피는 1000 단위씩 이정표에 이를 때마다 주된 동력이 계속 달라졌다. 1989년 3월 1000 고지를 뚫을 때는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 호황’을 등에 업고 수출 기업이 고성장을 거듭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상흔을 딛고 2000을 돌파한 2007년 7월에는 적립



Chat GPT로 생성한 ‘오천피시대’ 이미지

식 펀드의 인기가 주가를 이끌었다. 3000 고지에 이른 2021년 1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뿌린 유동성이 바탕이 됐다.

4000~5000 시대를 이끈 주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였다. 우선주를 포함한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이날 기준으로 1500조 원이 넘는다.

자동차도 큰 역할을 했다. 현대차와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일반 공개한 아틀라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현대차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 크다. 특히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시선을 끌었다. 글로벌 정보통신 전문매체이자 CES 공식 파트너인 C넷은 이번 CES 2026의 ‘베스트 로봇’으로 아틀라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방산, 조선, 원전 등 기술·산업주들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탰다. 한미 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종목이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코스피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정부는 증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부동산 규제를 통한 증시로의 ‘머니 무브’ 유도에 힘쓰고 있다.

각종 호재가 겹치자 외국인들도 움직였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코스피시장에서 4조187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오천피 핵심주역은 외국인”이라며 “글로벌 자금은 미국 시장 대비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에 높고, 전 세계에서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한 한국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지수는 외국인 수급과 궤를 같이해왔으며, 현재의 유동성 확장 국면을 주도하는 주체 역시 글로벌 투자자”라는 게 윤 센터장의 설명이다.

기관도 같은 기간 2조205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금융투자자들은 6조6054억원 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8조9000억

여치를 팔며 시세차익을 누렸다.

#### ◆ “반차 쏠림 벗어나야 지속 가능”

코스피 우상향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코스피가 5000시대를 열었지만, 다른 주요국 증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만은 물론 MSCI 신흥시장 벤치마크 지수보다 낮다.

### 반도체 중심 K-기업 저력 빛나 정부 증시 부양책 투자심리 자극 증권가, 당분간 우상향 지속 전망

1470원대의 원·달러 환율도 주식 상승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원·달러 환율은 상승) 외국인이 원화로 산 주식 가치도 떨어지기에 ‘코스피 탈출’ 행렬이 일어난다. 하지만 올해는 원화 가치는 추락하는데 코스피는 상승하는 ‘디커플링’이 뚜렷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1월 들어 뜨거운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해 매도우위를 보이는 반면 유틸리티, 상사지본재, 조선 등 주로 산업재에 대해서는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유 비중 자체가 이미 높은 업종들보다 경기에 민감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유율이 낮은 업종 중심으로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 기대도 증시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은 코스피 6000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세제, 자본시장 제도 개선

이 투자심리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동력으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꼽았다.

다만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2.2% 급증한 덕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력 산업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석유화학(-11.4%)·2차전지(-11.9%)·철강(-9.0%) 등 주요 15대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의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증시 쏠림이 이어지면 그만큼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수는 빠르게 올라왔지만 모든 기업의 체질이 함께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적과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업들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수 추가 상승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증시 랠리에 환호하는 대신 우리 경제의 쏠림을 완화하고,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게 만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정용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중복상장 방지법’ 등 추가 증시 활성화 논의

### 李 대통령, 코스피 5000 특위 오찬 오 위원장 “자본시장 체력강화 공감”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등 추가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5000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상법 개정을 추진해온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과) 현재 코스피 5000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개선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시점에 대해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입법 목표 시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후속 과제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복상장 방지법’ 등을 언급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오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상속증여와 관련해 비상장 회사는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반면,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소영, 김영환 의원이 논의를 주도했고 법안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감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물적분할한 회사가 상장해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중복 상장 역시 엄격하게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관련 제도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전제가 L·G의 물적분할 사례로 시작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정무위에서 막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 전문가들 “단기 급등 아닌 구조적 상승”

기업 이익 모멘텀·외국인 수급 맞물려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5000선 돌파를 단기 이벤트가 아닌 이익 모멘텀과 외국인 수급이 맞물린 구조적 상승국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6년 연초부터 코스피는 급등 랠리를 전개 중”이라며 “외국인 수급과 이익 모멘텀(동력)의 조합이 랠리의 근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수 상단에 대한 전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연간 단위로 5650포인트 상단을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 이익이 꺾이지 않는 한 (상승)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삼성전자 목표주가 18만원, SK하이닉스 96만원을 제시했다.

차기 주도주로는 “▲조선 ▲방산 ▲원전 ▲로봇 등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MASG A), 전쟁, 전력,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각종 재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연구원도 “추후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을 반영해 PER(주가수익비율) 12배 레벨 구간에 해당하는 5200선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이번 강세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지수 급등에도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밸류에이션은 약 10.2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평균레벨에 불과하다”며 “이익 모멘텀의 강도가 큰 만큼, 지수 상단을 추가로 열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천피’ 그 다음을 향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유종우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협 판결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리스크 해소가 변수”라고 짚었고, 이송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환 시장 안정화 방안과 산업 구조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는 동시에 “국가 펀더멘털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상승 요인을 찾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용 기자